

충남人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여성in

• 충남 여성정책 20주년 •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
김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인터뷰

• 함께하다 •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소모임 인큐베이팅
연변조선자치주 여성지도자 연수

• 말하다 •

20주년 기념 특별좌담_원로활동가와 신진활동가
SNS 홍보기자단 지난 4년의 활동

• 그리다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이스라엘 연수
2019년 연구과제(목록)
2019년 연구과제(개요)

Vol. 3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성평등은 충남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 도민이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요소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Contents

2019 **충남인 여성in** Vol.38

04	발간사
06	격려사
08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
15	20주년 기념행사 김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인터뷰
22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남도의 미래를 그리다

함께하다

28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34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40	소모임 인큐베이팅
46	충남지역교사 양성평등교육
48	연변조선자치주 여성지도자 연수

말하다

56	20주년 기념 특별좌담 원로활동가와 신진활동가
64	SNS 홍보기자단

그리다

72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이스라엘 연수
78	2019년 연구과제(목록)
80	2019년 연구과제(개요)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에 대하여

90	언론 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94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충남인
여성in**

통권 제38호 발행일 2019.12.17 발행인 양승숙 발행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소 32626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전화 042) 825-1823
 팩스 042) 825-2461 누리집 www.cwpdi.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wpdi
 편집·인쇄 ㈜봄인터랙티브미디어 www.bom21.com

발간사



지난해 11월 1일 취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확보 등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해의 시작으로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밝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해의 시작은 경영평가 하위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작년 한해 기관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6년 연속 지역성평등지수의 하위권인 충남의 상황 극복이라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출발했습니다.

우선 첫 출발로 올해 초 15개 시군의 단체장 접견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진은 충남의 지역성평등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정 8대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비롯하여 제 2차 충남 양성평등 3개년 계획 수립 연구, 시군의 성인지 통계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충남의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지역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 작은 공모전, 다양한 전문가 대상의 성인지 업무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본원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여성 지도자들이 충남을 방문하여 전국 최초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아이키움플 등 현장기관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교류협력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금년은 본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충남의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한 가운데 다채롭고 성대한 기념행사를 성료했으며, 충남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20년을 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지역성평등지수의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나아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는 두개 등급이 상향되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으로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과는 항상 본원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 해주는 충남 도민들과 특별히 낮은 곳에서 수고하는 여성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복지재단의 출범과 충남여성플라자(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 협력하여 충남도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자리 매김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

발간격려사



한해를 마무리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걸어온 길을 도민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이 작은 책자의 탄생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충남 여성의 힘찬 발걸음을 기록한 양승숙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 양성평등의 산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작았던 때부터 미투운동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여성이 단순한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닌 도정의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양성평등 충남도정의 구현에 이바지했습니다. 올해로 성년에 접어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양성평등사회를 더욱 힘차게 견인하길 기대합니다.

충청남도도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충남은 충남복지재단을 출범하며 충남형 사회복지 모델 개발과 도내 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2년까지 가칭)충남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풀뿌리 여성조직 육성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충남이 여는 그 길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도청 행정부지사실 맞은편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에 오갈 때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들과 공직자들이 양성평등, 권익보호, 가족다문화, 청소년 등과 관련된 회의와 토론으로 늘 바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르렀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해에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을 믿고 의지하며 여성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사장 김 용 찬

발간격려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인 여성in」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9년 한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한지 20주년 되는 해로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회와 함께 공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가슴에 뚫습니다. 2020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합니다.

도민의 의식수준이 다방면에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시·군 단체장 접견, 유관부서,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수렴을 집약하여 정책 발굴 및 교육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충청남도 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출생·보육·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충남인 여성in」소식지에 그동안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지역성평등 정책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의 허브기관으로서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도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연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 연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충남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변화와 성과

시기별 특성과 주요정책 변화

시기	가정복지 정책 추진기	여성정책 기반 형성기	여성정책 확대기	여성·가족정책 확대기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기
연도	1995~1996	1997~2000	2001~2006	2007~2014	2015~현재
민선기수	민선1기	민선1기, 민선2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민선6기, 민선7기
특징	가정복지증진	여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분야별 여성정책 확대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정책 확대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중점과제	가정기능교육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정역할 제고	여성정책	여성정책	다문화가족 안정 및 사회통합	성평등정책
대표정책	·모자가정지원 ·건강가정육성	·여성정책심의 ·여성자원활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여성복지발전 기금 조성 및 기금사업 ·유관순상 운영	·다문화가족행복 가꾸기(어울림)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과 및 시사점

1) 가정복지 정책 추진기 (1995~1996)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한계’

-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점을 둔 한계
-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기금사업,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 대상 부녀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갖추어나간 것은 성과

2) 여성정책 기반 형성기 (1997~2000) ‘여성인력을 자원봉사에 활용’

- 추진체계 기반을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보다 한발 앞서 갖추었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2000년 이후 여성정책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기반을 형성한 것은 성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설립 1999년)
-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을 증대하는 임파워먼트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민선1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니 20년, 양성평등정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자원 배분의 균형이나 평등을 넘어서 성별 간의 차별적 권력관계를 없애고, 일상에 녹아있는 차별적 문화와 구조를 바꾸어나가는 양성평등정책. 지난 20여 년간 민선 지방자치의 시대에 펼쳐진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 여성단체를 여성의 권익대변과 의제들을 확산해가는 주체로서 성장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사회봉사 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사업에 동원, 활용하는 한계

3) 여성정책 확대기 (2001~2006) '성 주류화 시도'

- 여성발전기금조성과 여성복지발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촉진, 권익증진, 취약가정 지원 등 민간단체 주도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확보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하여 여성의원, 여성위원, 여성정치지도자 등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이 부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여성의 참여역량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성과
- 여성정책의 확대와 주류화 전략이 정책 추진 체계속에서 밀도 있게 추진되지 못한 한계

4) 여성가족정책 확대기 (2007~2014) '다문화가족 중심 가족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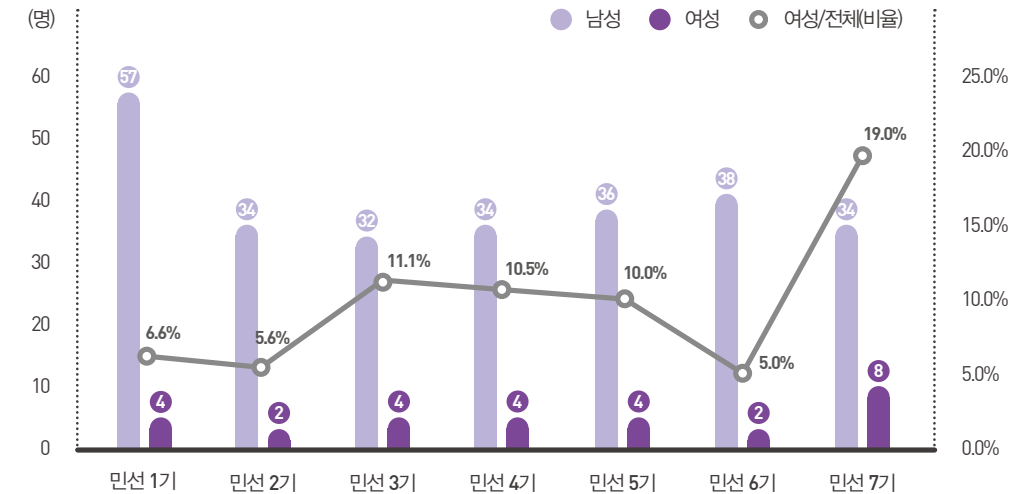
- 국가정책의 본격적 확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련 사업에 도의 집중적 투자와 지원 인프라를 갖춘
- 도내 가족의 생애주기별 과제에 따른 정책이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으며,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환경 정책 등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
- 양성평등 촉진이나 성인지 제도의 운용에 있어 소극적
- 성인지 제도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추진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기 (2015~현재) '젠더거버넌스 사업'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은 충남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디딤돌이 됨. 젠더거버넌스 사업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의 점검과 정책개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에 있어 부서의 실행과제와 연동된 관리지표를 발굴하고 양성평등 도정 확산을 위한 총괄 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 필요
-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육성과 여성 임파워먼트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

의회 및 단체활동의 전개와 성과

민선시기별 충청남도 여성의원 현황(광역의회)



민선시기별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도정질의와 5분발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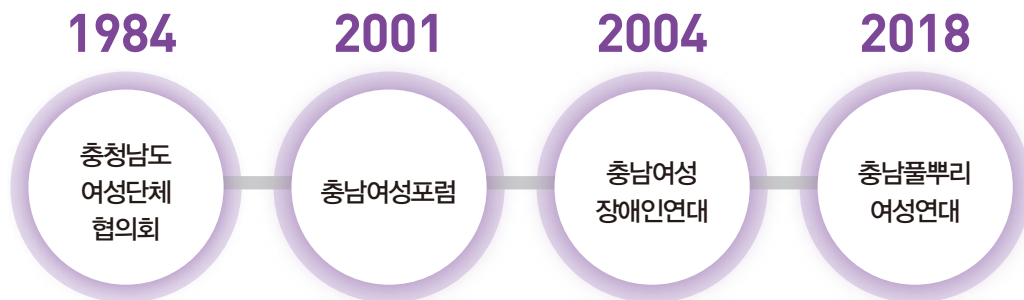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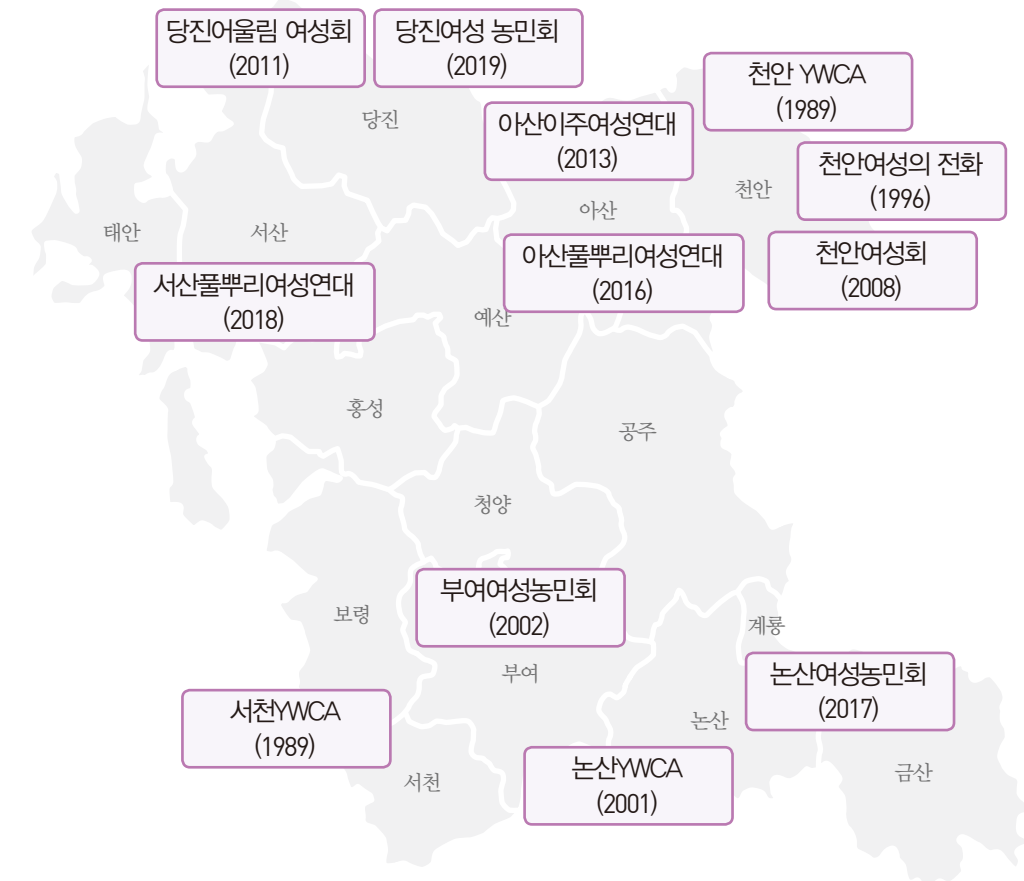
구분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민선7기
여성·양성평등 관련 건수	7	11	9	8	9	3	7

성과 및 시사점

- 여성위원의 수와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시안 제기 빈도의 관련성 (의회 여성정책 필요함 시사)
-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주제의 관심사안 대상이 확대됨
- 정책 제안에 있어 구체성을 띤 부분 증가됨
- 제기된 내용, 주제가 시대별 현안과 관련해 다양하게 확대된 경향성을 보임
- 여성 대표성과 같은 시안은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할 과제)

- 도정질이나 5분발언의 내용을 보면, 일부 남성의원들도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여성의원들만의 몫은 아님)

여성단체 활동의 변화와 특성



시기별 특성 (성과)

- 충남의 여성단체 활동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1980년대 초반에 창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말 시민사회운동이자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천안YWCA와 서천YWCA가 창립되면서 충남의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민선1기에는 천안여성의전화, 민선2기에는 논산YWCA가 창립되면서, 민선1기와 민선2기의 여성운동은 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 인권, 저소득층 여성 취업 및 일자리 등 복지와 경제적 참여와 관련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민선3기와 민선4기에는 여성단체 활동의 지형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충남여성장애인연대와 부여여성농민회(재창립)의 창립이 이어지면서 여성운동의 외연이 장애인과 농민 등 당사자 운동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또한, 민선2기의 후기에 창립된 충남여성포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형성되는 특성을 보임
- 민선5기 이후에는 자생적인 지역 여성운동단체의 창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전 시기의 단체들이 주로 전국 단체의 지부 조직이 대다수였다면, 민선5기 이후부터는 자생적인 신생 운동단체들이 증가해 여성운동의 지평이 보다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또, 이러한 신생 단체들은 민선5기와 민선6기에 천안, 당진, 아산, 논산, 서산의 기초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생겨나면서 단체 수 증가라는 양적 지평 외에도, 활동 공간적 차원에서도 여성운동의 지평이 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민선6기 이후에는 신생 풀뿌리여성단체들의 창립이 증가되었으며, 광역단위 운동단체가 창립되는 등 지역 여성운동 외연의 확대와 다양성이 증대됨. 특히 민선6기 이후에는 활동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여성운동단체와 신생 여성운동 단체들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충남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음

시사점

- 신생 운동단체들이 증가했으나 활동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활동가들의 성장과 단체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지역 내 성폭력 사건, 여성대회 기획과 추진 등 한정된 사안에 머물러 있어 성평등 이슈 확대와 정책적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여성운동단체들의 새로운 운동방향에 대한 과제로서 위탁시설 운영의 사업들이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지자체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운동 단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세대의 유입과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
- 기존 여성단체,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들의 경우 회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단체활동의 활력을 상실하고 미래지향적인 활동방향을 기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쉬움
- 돌봄과 봉사활동이 주가 되는 단체로서의 현실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세대와 교감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 활동과 운영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 I 지역적으로 변화 착종된 현실의 요소들을 파악해내고 이를 '정책화'하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욱 필요 함
- II 성별 감수성 및 요구의 차이에 있어 향후 남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과 정책 설정을 필요로 함
- III 개인의 생애과정의 다양화가 가족의 변화와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더욱 요구됨
- IV 향후 양성평등정책은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하여 보편적인 삶의 질 증대와 개인의 선택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함
- V 행정 전반의 성주류화 확산과 성평등한 점검체계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VI 향후 충남의 양성평등정책은 시군의 특징점을 살리되 지역 간 불균형을 상쇄할 수 있도록 유도 혹은 견인할 수 있는 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함
- VII 양질의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거버넌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th

CHANGE & CHALLENGE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기념행사 속으로

1999년 7월 6일 태어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스무 살이 되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이십년의 세월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빛나는 청춘을 맞이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함께 나누었던
2019년 10월 16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찾아가 본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_세미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숙 원장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고,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청운대학교 권정숙 교수와 여덟 명의 지정 토론자들이 소개되었다. 토론은 'Change'와 'Challenge'라는 두 개의 섹션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팀 소명수 팀장의 마무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CHANGE Part 「충남여성정책 20년의 성과와 시사점」



이미원 도시와 젠더 대표

충청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4개 등급 중 하위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 개발원은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고, 충남은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육성과 여성 임파워먼트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충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젠더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 도민, 전문기관 모두가 시대의 변화에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김혜영 충청남도인권센터 센터장

충남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고 이주해 온 여성들을 위한 활동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단체의 경우 회원확보가 힘들고, 상근자 인력수급이 어렵다. 개발원이 기존에 만들어진 여성단체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하나로 힘을 모아 여성의 이슈를 만들어간다면 충남 성평등지수도 올라가고 여성의 힘을 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CHALLENGE Part 「앞으로의 20년, 미래를 향한 도전」



박선의 충남플뿌리여성연대 대표

충남에는 여성단체가 없다는 말을 들곤 했다. 그런 이야기 듣고 필요성을 느껴 단체를 만들었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이다. 젠더 관련 이슈를 제대로 견인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신생단체가 처음 발을 내딛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고 함께 할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손잡고 같이 해야 한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지원하고 조언해주었으면 한다. 긴 호흡으로 촘촘하고 세심하게 충남의 변화를 위한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신지연 부여군여성농민회 조직교육부장

농민수당을 농가에 주는 상황만 보아도, 여성농민이 농업인으로서의 생산의 주체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농민은 보조 역할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위향상은 말 뿐이고,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농촌형 성평등 정책, 여성농민이 행복한 정책이 있어야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고 나아가 '더 행복한 충남'도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민주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먼저, 2020년에는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고, 개발원과 유대를 강화하면 어떨까 한다. 둘째, 기초단위 센터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체크해 보완, 발전해 가면 좋겠다. 셋째,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으면 한다.



최미자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지회 회장

이주여성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성을 키워 다문화라는 말이 필요치 않은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선주민과 이주민 서로 소통하며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개발원의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다문화라는 말이 필요치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꾸준히 함께 하는 기관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김윤아 예산 아줌마 모여요 부회장

예아모는 육아에 초점을 둔 맘카페가 아닌 엄마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커뮤니티 카페다. 여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고 여성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 나 자신의 행복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이루고자 한다. 예아모는 집 안에 있는 엄마들이 모두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나와 충남의 리더로 활동하시길 바란다.



소명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팀 팀장

젠더이슈를 선도하고 확산하며 정책 의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및 여성포럼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사업수행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나온 20년과 앞으로 가야 할 20년은 도정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추진력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여성들의 요구와 시대적 환경 변화의 균형점을 찾는 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Change & Challenge



식전행사

토론이 끝나고 야외에서 식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되기'라는 식전행사가 시작됐다.



컨벤션홀로 돌아와 이어진 식전행사에서는 생태문화교육연구소 마늘의 사물놀이와 마당극 '자기만의 방'이 진행됐고, 본 행사에서는 타인락의 난타공연이 펼쳐지며 열기를 더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숙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 비전 구현은 성평등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 20년은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여성·가족·다문화 영역 등에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연구를 더욱 견고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관련 단체와 지역 풀뿌리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격려사 · 축사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격려사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제도·정책적으로 충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충남 성평등지수가 전국의 최하위권이 된지 벌써 5년이 지났으며, 중요 의사결정기관에 여성들의 수가 너무 적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응원과 함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힘찬 도전을 지지했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도움으로 성평등 전문강사를 길렀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빠르게 성평등을 이뤄내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기성세대도 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은다면 더 행복한 충남, 성평등한 충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국회는 여전히 남성위주의 구조로 되어있지만 이를 깨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김진호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한 좌표를 남겼으면 한다며, 축적된 전문성을 통해 충남뿐 아니라 군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이나 각종 위원회 등 성평등 관련된 정책을 펴가는 데 여성비율과 역할이 아직 적다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성평등 정책, 여성의 삶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주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억의 20년 & 기대의 20년'이라는 타이틀로 개발원이 걸어온 길을 영상



으로 시정하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장애물들 ‘임금차별’, ‘젠더폭력’, ‘유리천장’, ‘가부장제’의 표식을 붙인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끝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스무 살 생일을 기념하여 내빈들이 무대로 속속 모였다. 손에 손을 모든 이들은 “Change and Challenge”를 외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케이크를 커팅. 20주년 기념행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미니 T·a·l·k T·a·l·k

이행찬 _천안 정서발달 지원센터 ‘씨앗’

이렇게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축하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좀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 _천안 충남청소년 인권연합회 ‘인연’ 회장

저희 ‘인연’이 만들어진지 3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함께 한 사업이 많아서 제게도 개발원 20주년이 뜻 깊습니다. 지금의 20주년을 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예은 _천안 충남청소년 인권연합회 ‘인연’ 부회장

저 보다 나이가 많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행사에 참여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오늘 행사 중에는 풍선 터뜨리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유리천장, 임금격차 등 앞으로 깨나가야 할 부분들이 풍선과 함께 정말 깨뜨려지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김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충청남도 여성 정치의
도약을 위하여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남도의 미래를 그리다

지난 11월 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은 미래개척 분야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 충청남도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참여와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관협력 · 거버넌스 구축

충청남도 성평등지수 향상의 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성평등지수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네 개의 등급 중 최하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연 위원장은 충청남도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남 15개 시군의 성평등지수를 지표별로 분석, 시·군 단위 관계기관 및 NGO 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김 위원장은 2020년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보다 민관협력 사업이 중요합니다. 연구원에서는 기본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의회와 시군의 여성단체들과 공유하면서 사업을 제안하는 기

반이 잡혀야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이 그 사업에 집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집합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고사리)’입니다.”



**‘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고령화 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국가 정책과 제도, 소비방식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 산업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자는 의미가 ‘고사리에 담겨있다.

“60대에는 여성이 60%, 80대에는 여성이 80%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여성을 빼놓고는 노인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인데, 문제는 여성에게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이하, 고사리)’은 여성들의 노년을 준비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성들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 한편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음으로 경제력을 얻고 나아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사리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한 김 위원장은 여성들이 마을 단위 특화사업을 통해 활동비를 만들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교류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공동체 사업을 통해 쌀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쌀을 재가공해서 떡국 떡을 만들어 판다가 명절에 쓰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과 공동체 사업을 하는 여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체를 통해 보완하면서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타인을 위한’ 봉사의 개념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방향으로 여성단체 활동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의원의 능동성·사회정보능력 강화
충청남도 의회정치의 기능성**



충청남도 광역의회 의원 42명 중, 여성의원은 8명(19%), 시·군 기초의회의의원 171명 중 여성 의원은 46명(26.9%)에 불과하다. 충남 여성 의원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김 위원장에게 지난 초선의원 시기는 ‘비례’와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현재, 김 위원장은 다른 여성의원들과 함께 충청남도 의회정치의 가능성을 한층 넓혀가고

있다.

“여성들에게는 지방의회 정치를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지역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다만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원들은 전투력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함께 공유하고, 예산 특위를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최대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여성들이 현실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보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접촉력을 늘린다면 섬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야말로 효과적인 정치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이끄는 충청남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나갈 길**

충청남도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여성 국회의원이거나 여성 단체장을 배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단위에 있어서 구조의 중요성을 말하며 충청남도에서도 여성이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는 것과 아닌 경우, 제안에 대한 결과와 예산에 실리는 힘이 달랐습니다. 충청남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길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큰 정치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

고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성 문제를 잘 풀어간다는 것은 가정을 잘 만 들어가는 것이고, 가정이 편안하면 사회가 편안해진다고 봅니다. 안전, 경제, 일자리,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여성이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여성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성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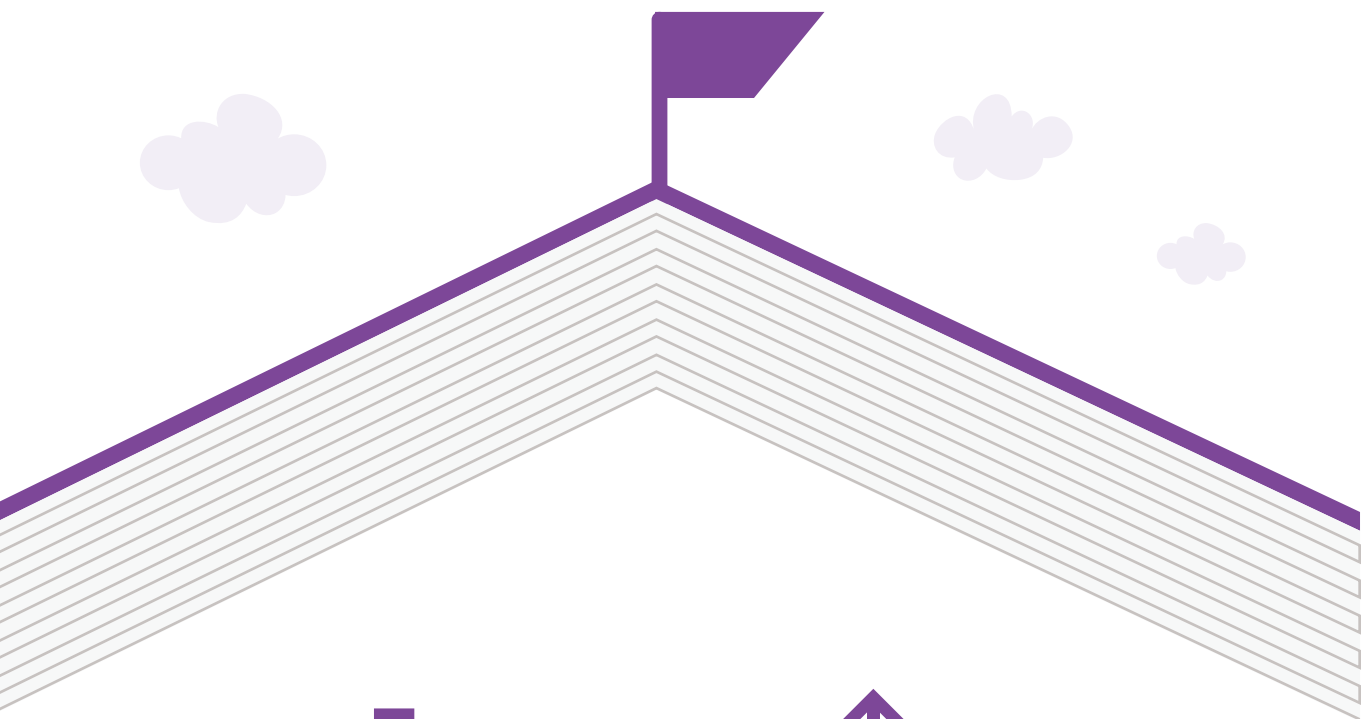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성인지역량강화교육

소모임 인큐베이팅

충남교사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과정

연변조선자치주 여성지도자 연수



성인[♂]지 역량[♀]을 키우고, 지역을 키운다.

2019 시군으로 찾아가는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 논산 -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는 충남 풀뿌리여성활동가의 성인지적 관점과 지방자치 참여 역량을 제고하고, 논산시 풀뿌리여성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최하고, 논산시와 논산풀뿌리가 주관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29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8강의 유익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논산시의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P r o g r a m

구분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11월 5일 (화)	왜 이렇게 Hot 하지? 젠더와 성평등	권문영 (젠더로 다시어는 연구소 선임연구원)
2강	11월 8일 (금)	다양성의 존중!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기	이정주 (크리에이티브 다양성센터 대표)
3강	11월 12일 (화)	나로부터의 변화 나의 성차별성 마주하기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4강	11월 15일 (금)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19대 국회 의원)
5강	11월 19일 (화)	지방자치 20년, 내 세금은 어디로?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공동대표)
6강	11월 22일 (금)	풀뿌리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	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비람 운영위원)
7강	11월 26일 (화)	우리지역 젠더 이슈 들여다보기	임원정규 (성평등기획활동가)
8강	11월 29일 (금)	여성주의 소통과 리더십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11월 8일 금요일, 2019 시군으로 찾아가는 충남여성 풀뿌리자치학교 두 번째 시간은 '다양성의 존중!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기'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운진 연구원은 강의에 참여하는 수강자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간단한 자기 어필 시간을 갖자고 제안, 여섯 명의 수강자들이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우민자입니다. 개발원이 공주에 있다 보니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논산에서 풀뿌리자치학교를 한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

“ 한국 소비자연합 논산지부 지부장 김혜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풀뿌리자치학교 1기 회장 최명옥입니다.
2~3년 전 개발원과 인연을 맺었다가 근래에는 자주 활동을 못했습니다. 유익한 교육이 많아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지금껏 못 다한 빛을 갠해보겠습니다.”

“ 대전에서 손녀를 보러 온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추천을 해서 오게 됐어요.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 최선을 다하는 최선희입니다.
원래 논산 토박이인데 타지에서 있다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것들을 논산에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 돌아온 지 2년 됐습니다.
네트워킹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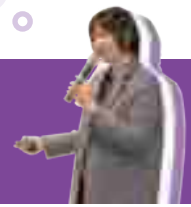
“ 논산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윤희정입니다.
논산에 살면서 논산에 역사 유적지가 이렇게나 많은 지 몰랐어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와 역사에 대한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자기소개를 마치자, 조운진 연구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여성이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이정주 대표의 본 강의가 시작됐다.



강의 맛보기

다양성의 존중!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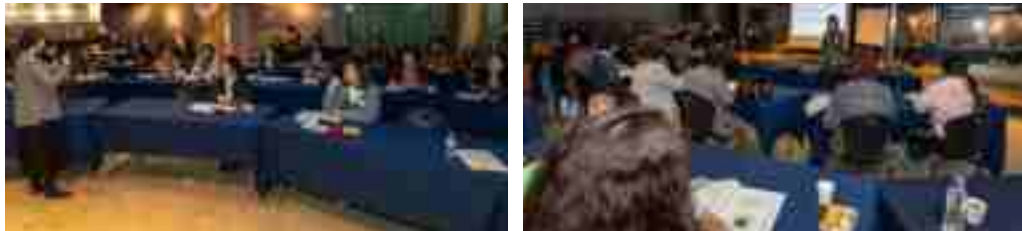


「서 있는 곳이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라는 글자가 적힌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자.
“서해, 남해, 동해라는 이름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졌을까? 쉬운 예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남해는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는 바다인데 왜 남해가 되었을까? - 답은 우리나라가 육지 기준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 지식들도 사실은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정집단’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인식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여행과 독서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함으로써 성장해야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 ▶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말은 존재, 정체성, 문화처럼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 자연스럽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인정하자는 의미이다. 효율성을 내세워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 살색, 하늘색, 정상가족...
- ▶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무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생각과 의견, 견해를 개개인 각자가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후에도 강의는 '교차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사고해야 내가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차별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을 총량이 정해진 경쟁으로 여기지만, 평등과 인권은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고, 일상 언어에 스민 여성혐오와 소수자 배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서, 교육, 시민운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을 성찰하고 습관과 태도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강의 후기」 미니 T.a.t.k T.a.t.k

Q 논산풀뿌리는 어떻게 풀뿌리자치학교를 주관하게 됐나요?

A 1년 전 논산풀뿌리라는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부스 활동도 하고, 플라스틱 없애는 환경운동도 하던 중 차경선 의원님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풀뿌리자치학교를 추천하셨습니다. 논산 여성인재들이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Q 풀뿌리자치학교의 의미를 설명해주신다면?

A 젠더와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아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최선희 논산풀뿌리 총무

Q 오늘 강의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A '블랙라이크미'가 인상적이었어요. 백인이 흑인의 얼굴을 하고 흑인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 차별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약자에 대한 차별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입장이 되어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난 이후의 희망, 계획은?

A 먼저 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 엄마들이 역량을 강화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새로운 시도와 실천을 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풀뿌리자치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A 아이들 교육을 위해 엄마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젠더와 양성평등에 대해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풀뿌리자치학교 교육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옥

Q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은?

A 첫 강의 때도 그렇지만 두 번째 강의 때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다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강의를 통해 그것을 구분하고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 오늘 강의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A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저 조차 때때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알고 살아왔지 않었나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Q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A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라고요. 다름과 틀림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기준으로 사고하길 바란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성평등」 노년을 행복하게, 마을을 살기 좋게

성인지역량강화교육

지난 8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됐다. 8월 19일 논산을 시작으로 20일 천안, 26일 부여, 29일 태안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성인지감수성'을 주제로 펼쳐졌다.

8월 26일,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부여 여성문화회관 3층은 연신 즐거운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임원정규 강사가 특유의 친근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이들은 건강한 노년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인지감수성」 in 부여 강사 임원정규



성평등, 왜 필요할까?

성평등을 주식용어로 바꿔 말하면 '우량주'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을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기반으로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재치 있는 표현이다. 기반과 바탕이 바로 잡혀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 성평등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오늘날, 여성의 평균수명은 과거에 비해 길어졌지만 건강수명은 좋지 못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에 도달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중년여성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 덕 못 보는 첫 세대'라고 한다. 오랜 시간 여성들은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매일을 '오늘 저녁에 뭐 해먹나?'를 고민하고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65세쯤 되면 몸이 확 늙게 되면서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어려워진다. '먹이고 돌보는' 일이 여자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네부엌'을 만들어서 여성이 일을 떨고, 마을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더 즐겁게 '마을 돌보기'와 '마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생명과 사람을 살려왔던 여성들은 약하고 소외된 대상을 두고 보지 않는 '보살핌의 경제학'을 실천해왔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포용해 서로 보살필 수 있는 것도 여성들의 장점이며, 남성들 또한 교육을 통해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충남, 지금 우리는?

요즘 충남 지역은 어떤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싸운다. 30년 뒤 전국 시·군·구의 40% 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의 위기는 턱밑까지 올라왔다.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고, 젊은 여성이 떠나는 곳들이다. 이제 **충남의 지역들은 더 이상 각자의 이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

50년생 아버지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현재는 돈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시스템과 대립적 사고방식으로는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개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과 지역이 같이 잘 살 수 있게 함께 움직여야 하고, 복지에 있어서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 지역 성평등 수준을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범죄·재난·산업·생활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여성을 비롯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녀는 참지 않았다. 무엇을?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타 지역으로 시집을 와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도 이주여성인 셈이었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노년층에 가면 더 답답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암암리에 노인 성폭력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마을에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 마을의 이장은 남자고, 파출소에서도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아닌

가해 할아버지에 대해 '그 양반이 그럴 분이 아닌데'라며 옹호하는 식이다.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남자가 많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여성들이 이장에도 많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총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 50대의 어머니와 30대의 며느리만 고생스럽게 제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제사를 지내는 등으로 명절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남자가 나무면 여자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다양한 오답들이 나온다. 정답은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다!' 남녀노소,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 사회를 같이 꾸리고 살아가야 한다.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는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나무꾼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하며 '곰 세 마리' 동요 속에서 엄마, 아빠, 아기의 모습에 투영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 똑똑하게 키워낸 20대·30대 우리의 딸들은 미투운동, 탈코르셋운동 등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나이 들'을 같이 준비하고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십년 후 지역사회 성평등을 이룰 것이다.



「강의 후기」 미니 T·a·l·k T·a·l·k

「성인지감수성」 in 부여

Q. 오늘 강의를 통해 느끼신 점이 있나요?



박성옥 부여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이미 남녀평등 됐지 않냐'면서 '어디까지 가려느냐'고 되물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라고 말을 시작하죠. 오늘 강의 중에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서로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여성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합쳐서 권리를 찾고 여성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순복 대한어머니회 부여군지회 회장

저는 딸만 둘을 키우는데, 딸이 사위에게 '너희 집 명절 제사는 네가 지내. 우리 친정 제사는 내가 지낼게'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자는 자기 부모가 아닌데도 죽어라 고생하고,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잖아요. 그제야 딸 이야기가 맞다 싶었어요. 저도 가슴 깊숙이는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양성평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옥 대한어머니회 부여군지회 사무총무

저는 1남1녀를 키우는데, 최근에 맏이인 딸에게서 '심부름은 왜 나만 시켜'라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딸이 착하고 온순할 뿐 아니라, 제 말을 잘 듣고 이해해준다고 생각해서 심부름을 더 시켰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남자아이는 반대로 집안의 심부름에 대해 '여자가 할 일 아닌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반성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깨닫고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생활화하면 머지않아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거예요.



권창숙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여군지회 사무국장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변화에 적응해가고, 여성들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남성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요. 50~60대 남성들은 아직도 앉아서 시키는 것에 익숙해있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여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Q. 어떻게 하면 50대 이상 남성분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권창숙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여군지회 사무국장

시골에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수산물우수관리 제도) 교육 등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시군별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옥 부여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월 영농교육 할 때를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영농교육에는 남자분이 다 참석을 하니까, 그런 기회에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간단하게 20분이라도 배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오늘처럼 재미 있고 공감이 되게 강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조순복 대한어머니회 부여군지회 회장

양성평등 교육이 처음 시행될 때를 생각해보면, 여성들조차 잘 참여하지 않았고, 70대 이상 여성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참여도가 높아진 것처럼 남성들의 양성평등 교육도 단계를 밟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9 충남 여성플뿌리소모임을 소개합니다

페미니즘 관점 기반 지역잡지 '월담' 프로젝트 금산 난장팻

>> 페미니즘 관점 기반 지역잡지 '월담'을 만들다!

페미니즘 이슈와 금산 내 거주하는 여성의 이야기 등을 실은 금산 지역잡지

>> Why?

지역 내 다양한 청년커뮤니티가 존재하지만, 청년들 또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다.

>> What?

'출산과 육아'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산에서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협과 동시에 모든 금산 주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익힐 수 있는 첫걸음이 되고자 한다.

- I 페미니즘 칼럼과 에세이 등을 통해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 II 금산 거주 여성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의 주제적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
- III 지역 청년들, 특히 여성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3月

- 잡지 방향성 및 주제 선정
- 콘텐츠 회의



4月

- 금산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 진행
- 페미니즘 잡지 조사



5月~9月

- 원고 및 탈고 작업
- 자기방어/글쓰기/애니어그램 등 수업 진행
- 주 1회 잡지 회의



10月~11月

- 잡지 편집 및 디자인
- 11월 출판 계획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플뿌리소모임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 여성플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어떤 플뿌리소모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살펴본다.

마산면 마을동화책 만들기 사업 서천 물벼들아낙들

>> 과학과 예술을 접목해 고정된 성역할을 깨다!

미움의 아이와 어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재능을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준다.

>> Why?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가지게 만든다. 성별로 직업적 경계를 만드는 편견에서 벗어나 여자아이도 과학과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What?

습식수채화로 우주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예술-과학의 접점을 찾아보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동화책(우주랩)을 만들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 I 지역 어른들과 결과물을 공유하여 은연중에 내재되었던 성 고정관념과 고정된 성역할을 경계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 II 마산초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천문학 수업과 연계한 '우주랩 부르기와 습식수채화'로 과학과 예술 활동에 아이들이 성별 제한 없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 III 랩을 하는 여자아이와 그림을 그리는 남자아이를 모토로 열린 생각을 지향한다.



페미니즘 동네책방(복합커뮤니티공간) 준비모임
공주책읽는여성행동(공/책/여/행/)

>> 페미니즘 동네책방 만들기!

공주의 여성, 청소년, 대학생,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페미니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 Why?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페미니즘 활동을 위해 지역의 사람들(여성, 청소년, 대학생, 지역민 등)이 함께 모여 생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 What?

페미니즘 동네책방이 무엇이고 타 지역의 좋은 예시를 찾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공주 지역에 적합한 방향을 찾아 책방을 만들어낸다.

- I 페미니즘 서적을 읽고 생각을 나눈다.
- II 공주 지역의 여성, 소수자, 교육, 환경, 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III 페미니즘 책방에서의 소재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강좌1 페미니즘 동네책방이란 무엇인가?

답사 페미니즘 북카페 탐방

강좌2 지역활동가에게 들어보는 페미니즘

준비1 천연 발효종 우리밀 빵 및 카페 먹거리 운영

준비2 내 안의 가부장 탐구생활

준비3 책 이야기, 깨달음 그리고, 행동

준비4 Oneday Class '여성주짓수'

행동 '페미니즘 동네책방 이렇게 해볼까?'

성인지감수성 game up

아산 청소년 성평등 교육 연구모임 '올림'

>>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인지감수성 교육!

일방적 강의가 아닌 보드게임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Why?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 What?

보드게임 제작을 통해 더 쉽고 더 재밌게 성평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보드게임 학습과정

4월~7월 (3회)
보드게임의 기초 학습 20여종의 보드게임 학습
[학생들이 주로 하는 보드게임에도 성별고정관념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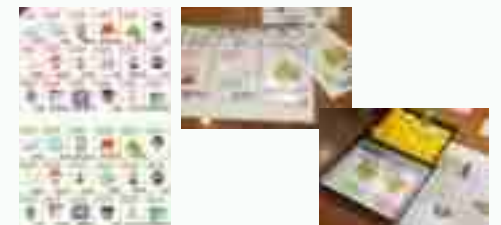
보드게임 개발과정

6월~9월 (3회)
'차별언어를 평등언어로'라는 주제로 전략게임 개발 및 보완



게임안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별언어들을 게임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화하고, 문제화된 차별 언어 만큼의 평등언어카드를 모아 차별을 해결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



페미니즘 영화보기 서산 씨네브런치

>> 영화로 페미니즘을 배운다!

서산 지역 여성들이 함께 모여 페미니즘 관련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 Why?

페미니즘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고 공감형성이 용이한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한다.

>> What?

페미니즘 관련 영화를 선정해 함께 관람하고, 주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실천하고, 젠더감수성을 고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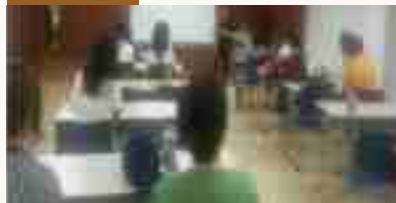
- I 페미니즘 영화를 선정하여 함께 관람한다.
- II 영화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III 토론을 통해 느낀점과 생각을 나눈다.

6월 26일 강연



-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화감상
- '스틸 엘리스' 영화감상
- '헤어드레서' 영화감상
- '세상을 바꾼 변호인' 영화감상

7월 17일 강연



- 노년의 성을 주제로 강연
-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을 주제로 강연
- 외모지상주의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영화토론
- 성차별을 주제로 영화토론

엄마가 들려주는 젠더동화 예산 맘스토리

>> 영유아기 아이들의 양성평등 가치관을 만들어준다!

예산의 여성들이 책 읽어주는 젠더엄마가 되어 양성평등 활동가로 성장하고, 아이들은 성인지감 수성을 체득한다.

>> Why?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 What?

여성 스스로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다.

- I 여성들이 능동적인 성평등 교육의 행위자가 됨으로써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II 성평등 관련 이야기를 조사하고, 아이들 용 구연동화 자료를 제작한다.
- III 예산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제작한 젠더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주요 사업 추진 내용

- 성평등 교육 참여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성평등 관련 이야기 발굴 및 판넬 등 구연동화 자료 제작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제작한 젠더동화 읽어주기 활동

활동 대상

예산군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 방법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 직접 제작한 젠더동화를 읽어주고 동화내용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양성평등 의식의 씨앗을 뿌리다

충남교사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과정



2018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¹⁾에서 청소년의 96.2%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 같은 조사의 결과(93.9%) 보다 2.3% 상승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개별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지난 8월 5일부터 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세미나실에는 유난히 학구열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충청남도 와 충남도교육청이 2016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한 이래, 올해에도 30여명의 교사들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는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숙 원장은 개강식에 참여해, 교육과정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했다.

“충남교육계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참석한 모든 교사분들이 앞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서 교육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진 오리엔테이션에서 충남도교육청 최정옥 장학사는 이번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노력의 의지를 밝혔다.

“매년 교육과정을 함께 하면서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성인지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생과 강사 그리고 교육생들 간의 토론과 참여방식을 강화한 이번 교육은 ‘인권감수성의 이해’로 시작해 ‘성인지감수성’, ‘청소년 성인권 실태와 대응방안’ 등 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섹션과 ‘청소년 몸교육에 다뤄야 할 내용’, ‘초등 몸교육’, ‘중·고등 몸교육’ 등 섹슈얼리티 & 성교육에 관한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노트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인권이다.

| 성인지감수성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젠더박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에서 씌워지는 억압, 즉 '남성이 남성다울 것'을 강요하는 것

| 경계 존중의 원칙 누구나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아 마땅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사회정체성	특권그룹	경계그룹	억압그룹	차별의 이름
성별	남성	간성	여성	성차별,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

| 자기방어를 위한 3가지 요소 감각켜기 → 반응하기 → 대처하기

| 성인권이란?

- 성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 성폭력 및 성매매로부터 안전할 권리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 받을 권리
-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성폭력 예방수업 예방 vs 대처_ 우리는 누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나요?

1 2019 청소년 통계표 (통계청)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충남의 가족'을 전하다

연변조선자치주 여성지도자 연수

2014년 5월 MOU를 체결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는 한중포럼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교류협력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9년 7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및 유관기관 여성 지도자 6인의 연수가 마련되었다. 강방 연변조선족자치주위 부서기와 한려련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주석, 한은희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권익보호부 부장, 신경애 연변주부녀연합회 가정과아동부 부장, 여애휘 연변족목개발그룹 사장, 전선숙 연변진달래의약유한공사 사장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충남의 보육, 여성권익, 가족지원 현장기관을 탐방하고 양국 기관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수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만나다

7월 17일 연수 둘째 날 아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향한 연수단은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이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양승숙 원장은 연수단의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 전 직원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한다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의 여성정책,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핵심적인 도정과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도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류활동을 이어가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수단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잘 지켜내고 있는 연변의 모습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서 강방 연변조선족자치주위 부서기는 답사를 통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여성조직간 교류를 더 깊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서로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비전과 전략, 역점사업과 활동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 후 양 승숙 원장과 강방 부서기는 양 기관을 대표하여 상호선물 증정식을 거행. 소중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본격적인 보육 및 가족지원 기관 방문을 앞두고 공주한옥마을에 들른 연수단은 정중순 공주시의원과 상면하여 이후 일정에 동행하였다. 공주시 관광단지길에 위치한 공주한옥마을에서는 관광여건이 좋은 공주시를 여행지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식 편리함을 갖추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온돌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규모의 전통 숙박시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을 둘러본 연수단은 한식으로 준비된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흥성으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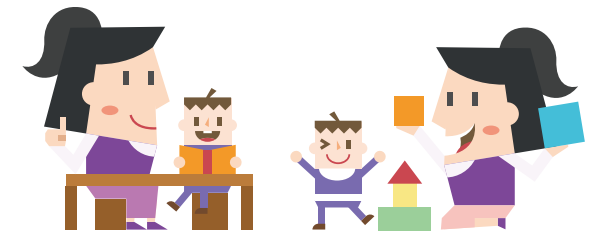
CWPDI gallery



전국 최초 충남 24시간 보육을 소개하다

내포신도시 소재의 구 도시사 관사를 활용하여 보육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아이키움뜰'에 도착한 연수단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김미정 센터장의 설명과 함께 내부시설과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은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주는 '키움노리'와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인 '키움노리카'를 운영하며, 양육상담과 24시간제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키움노리·키움노리카



연수단이 가장 먼저 둘러본 '키움노리'는 충남아이키움뜰의 장난감 도서관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촉진시켜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장난감을 전용봉투에 담아 대여해주고, 다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반납된 장난감은 소독 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충남지역에 2주에 한 번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 '키움노리카'를 운영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한다.

24시간제보육



충남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주간/야간에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5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보육교사 1명당 3명의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주중(월~금)에 이용 가능하다. 주간에는 시간당 1천원, 야간에는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부담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남아이키움뜰의 시설을 돌아본 연수단은 김미정 센터장과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 정책과 이태규과장이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Q. 충남지역 모든 아동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의 문제는 없나?

충남의 지역 특성 상, 모든 시군이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 내 필요하다면 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방 부서기



Q.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편인가?

본격 운영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됐고, 아직은 시범사업 초기라 야간이용 등이 많지는 않지만 급한 상황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충남은 저출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도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한려련 부녀연합회 주석



Q. 한국 저출산 문제는 어떤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한명 이상 낳으려고 하는가?

고용불안이나 육아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혼이나 만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다.

연수단은 중국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며 충남의 정책과 사례들을 귀담아들었다.

충남의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다

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동한 연수단을 김인숙 센터장과 직원들은 물론, 홍성군청 이은영 여성복지팀장과 전정화 주무관, 충남다문화가족협회 보령시지회 최미자 지회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연수단은 김인숙 센터장으로부터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진행된 프로그램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숙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홍성군의 11개 읍면 중, 시골이나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활·학습 지도를 비롯하여 방학 중 다양한 기관방문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언어적 특기를 살리고 자부심도 키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학교 측에 추천을 드리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는 외국인거주자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했던 정종순 공주시의원은 오늘 일정을 통해서 배운바가 많다면, “여성에 대한 공감유도를 넘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단은 이로써 둘째 날 충남의 보육 및 가족 지원기관 탐방일정을 마쳤고, 마지막 날에는 충남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방문. 건강하고 안전한 성문화 형성과 가치관 확산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충청남도 센터 탐방을 마무리했다.

말하다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좌담

SNS 홍보기자단 지난 4년의 활동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좌담

성평등의 씨앗 속에는 차별 없는 세상이란 열매가 삽니다

유발 하리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생물학적 근거가 박약한 상상의 질서(허구에 대한 집단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듯 ‘허구에 대한 집단적 상상’에는 세상의 다양성을 외면하는 무지와 편견이 존재합니다. 성차별이라는 낡은 상상의 질서에 도전하는 ‘용기’와 각양각색의 차이와 변화를 포용하며 서로에게 배우려는 ‘공감’. 바로 이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무한하게 해주는 ‘다양성(diversity)’의 힘이 아닐까요. 1999년 설립되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을 통해 인권존중과 인간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이제 새로운 밀레니움을 앞두고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충남 지역 각계 풀뿌리 여성 6인과 함께 개발원의 지난 20년을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40년을 생각해보는 특별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의 여성 관련한
많은 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여성권의 증진
관련 기관과 단체들,
활동가와 지역 여성들이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장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개발원입니다.

한마디로 충남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의 산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7월 6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합니다. 개발원이 걸어온 20년 동안 ‘호주제폐지’에서 ‘미투운동’까지 세상을 바꾸는 변화와 도전이 이어졌고, 개발원의 지향점과 사업방향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개발원이 그동안 지역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저는 2000년 5월에 개발원에 입사하여 2008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니 20년 역사 중 초반기를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주여성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던 무렵이 떠오르는데요. 개발원에서는 이주여성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주여성이 혼자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교육에 오도록 해서 참여를 유도한 것입니다. 한번 참여한 분들은 너무나 유익했다며, 다음 교육에도 꼭 불러달라고 당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개발원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내서 복돋는 역할을 개발원에서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영웅적인 용기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



켜내며 곳곳이 살아가는 여성들은 매우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믿으며, 개발원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양수영 호실천요양센터 사무국장 대구에서 오래 살다가 명예퇴직을 한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인 청양으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에서는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였는지라 청양에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을 알게 됐고, '제가 청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하소연이 담긴 편지를 써서 무작정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지요. '충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세요.' 이 말을 계기로 2003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개발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개발원은 저와 같은 여성에게 열정을 심어줬습니다. 거기서 받은 교육은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깨우치는 기회였습니다. 나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했지만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의 중요함도 깨달았기에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열정을 전염시켰습니다. 지역의 이주여성들에게는 개발원의 이주여성 대상 교육과 워크숍을 소개해서,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때 참여했던 봉사자들도 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들 뿌듯해합니다. 집안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업소일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장 개발원의 인연은 2001년 시작됩니다. 개발원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와 활동가들을 모아 '충남여성포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저도 포럼에 참여하며 개발원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충남여성포럼은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 관련 문제를 각 분과별로 진단하고 토론하며,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각자 흩어져 활동하던 여성들이 포럼을 통해 함께 모였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충남여성포럼뿐 아니라, 개발원은 충남의 여성 관련 많은 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여성권익 증진 관련 기관과 단체들, 활동가와 지역 여성들이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장을 만들어 준 곳이 바로 개발원입니다. 한마디로 충남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의 산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니다. 여성인재들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는 유능한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개발원 교육을 받고나면 한층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눈도 넓어지고 관점도 새로워지면서 더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소일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장

최미자 보령시다문화가정협회 회장 보령에서 다문화가정협회를 시작할 무렵,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님의 안내로 처음 개발원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면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개발원의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으쌔으쌔'하고 오면 지역에서의 활동에도 동기부여가 되고 힘도 났습니다. 개발원은 저를 키워준 친정 같고, 성장시

켜준 학교 같은 곳입니다. 개발원에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만나고 여러 단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협회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원이 이주여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전달해주셨다는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민의 이야기에 가장 많이 귀 기울여 주셨어요. 2016년, 개발원에서 진행한 '충남이주민상담콜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했는데, 이 연구결과가 반영돼 천안에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주여성들로서는 개발원마저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신다면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공동대표 가끔 저는 간증하듯 '나에게 제2의 삶을 살게 해준 곳이 개발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엄마로, 학부모로, 지역여성으로만 살던 제가 개발원에 다니면서 여성주의에 눈뜨고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 풀뿌리자치학교를 시작으로 개발원의 여러 교육에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니 성평등강사를 하게 되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도 하게 됐습니다. 여성단체를 만들고 여성주의 활동가로 교육을 하러 다니며 제 삶의 2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소속한 충남 풀뿌리여성단체들의 성장에도 개발원은 많은 기여를 했

습니다. 4 ~ 5년 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개발원에서 당시 안정선 원장님이 풀뿌리여성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각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지역의 작은 단체들이 모이게 됐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한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여서 보니까, ‘아, 서산에 여성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 개발원이 풀뿌리자치학교를 개설하였고, 바로 그 풀뿌리자치학교에서 ‘충남풀뿌리여성연대’가 태동했습니다. 각 시군의 풀뿌리 여성들이 다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하고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풀뿌리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연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성장시켜준 곳이 바로 개발원입니다.



박선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공동대표

임춘숙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저는 충남여협의 회장으로서 무엇보다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내 여성단체들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충남여협에서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양성평등교육, 성평등 캠페인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 이와 같은 활동 뒤에는 언제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협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2017년, 고향주부모임의 충남도지회장 입장으로 처음 개발원과 만났습니다. 열정적인 연구원분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발원과 충남여협은 한마디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충남여협 산하 여성단체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 빈 곳을 개발원이 연구하고 개발한 의제가 채워주니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3월에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와 포럼, 세미나, 교육의 공동추진에서 더욱 풍성한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켜내며
꾸뚝이 살아가는 여성들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
개발원은 한마디로
충남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곳입니다.

앞으로도 도의 정책에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꿈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폭우와 천둥을 견디며 도약하는 씨앗 속에는 꿈이 산다고 합니다. 차별이라는 낯고 험된 질서를 뛰어넘어 차이와 변화를 포용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용기와 공감의 ‘성평등 충남, 행복한 여성’이라는 꿈 말입니다. 이제 개발원은 새로운 40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짧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죄담회 말미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개발원은 다른 기관과는 구별되는 역할과 비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책임과 역할도 함께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누비며 듣고, 보고, 전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미완인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발원의 모든 분들이 더욱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양수영 호실천요양센터 사무국장 개발원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열심히 진행한 실태 조사와 연구들도 지역 여성의 삶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발원은 한마디로 충남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곳입니다. 앞으로도 도의 정책에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양수영 효실천요양센터 사무국장

업소일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장 앞으로 개발원은 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권의 증진 즉, 여성이 원하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여성들의 진출확대를 위한 사업, 풀뿌리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 등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의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여성인재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원이 여성들의 희망과 가능성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면, 이제는 함께 뛰고 실천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미자 보령시다문화가정협회 회장 이주민을 호칭할 때 요즘에는 이주해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주민',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선주민'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주민 담당 공무원조차 이런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아이들을 부를 때 '야, 다문화!'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개발원이 더욱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보령시다문화가정협회 회장

박선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공동대표 개발원이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지역 여성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 역할을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나와 보니 의욕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엮어

나가야 할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걸음을 배우는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개발원도 더 커져야겠지요. 지역 여성을 담당하는 파트가 생겨서 풀뿌리 여성들이 성장하는 데 더 많은 밑거름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춘숙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여성가족부에서는 7월 첫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했고, 충남여협에서는 매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충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들의 역량 결집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지요. 그런데 솔직한 제 바람은 이런 행사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을 정하고 기념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평등이 멀

기 때문이지요. 양성평등을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평등의 일상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개발원도 지금까지 정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충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숙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걸음을 배우는 단계에서도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여성을 담당하는
파트가 생겨서
풀뿌리 여성들이 성장하는 데
더 많은 밑거름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행복한 충남, SNS 홍보기자단과 함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SNS 홍보기자단이 활동을 한지 4년이 되었다. 이들은 평범한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들이 있기에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들을 더 쉽고 편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지난 9월의 막바지로 향하던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인 4기 SNS 홍보기자단.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소식과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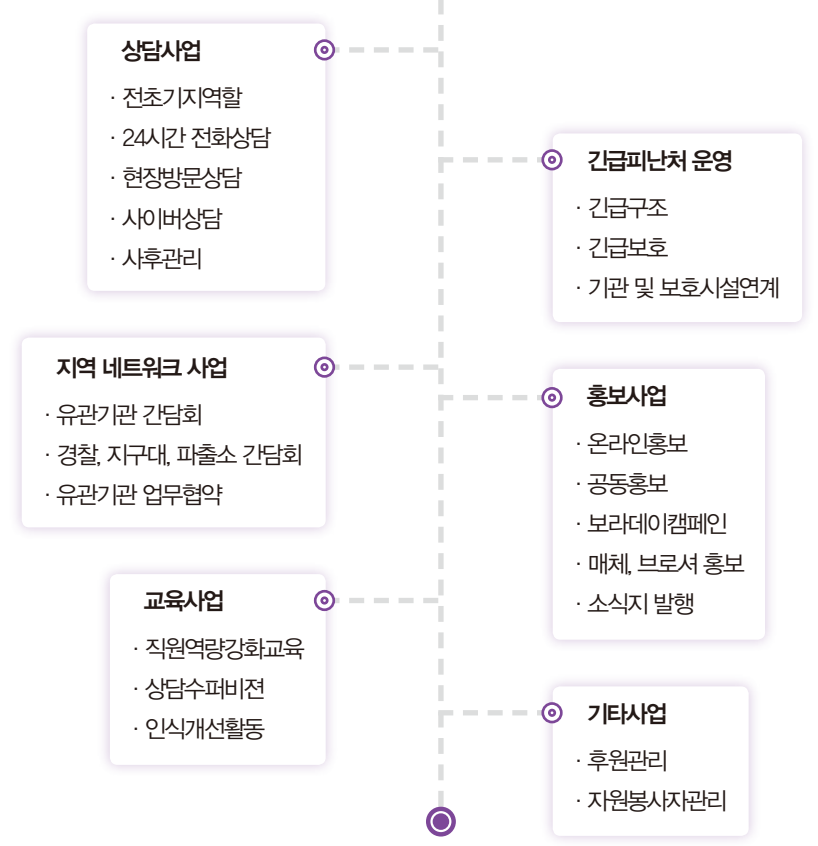
☎ SNS 홍보기자단이 간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지난 9월 27일, SNS 홍보기자단은 공주에 위치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이하, 1366)에 방문해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았다.

1년 365일 + 1일 = 1366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 긴급상담· 긴급구조·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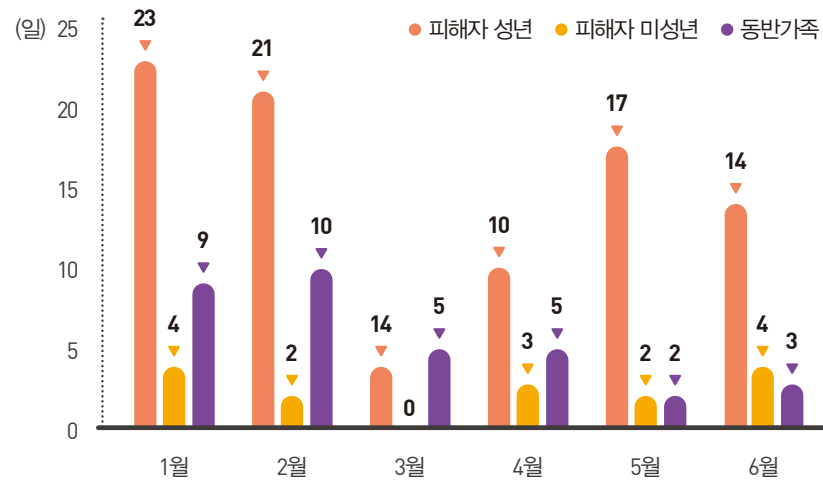
1366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건수는 16,210건에 달하며 한 달에 200건 이상, 하루 50~7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64%, 성폭력 15%, 가족문제 8%로 가정폭력과 가족문제를 합하면 72%에 달하여 전국 평균 54%를 크게 웃돈다. 충남지역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바, 1366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여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검·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366은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의 여성들을 긴급구조 후 3일에서 7일까지 보호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긴급피난처 입소현황

2019년 내용	보호 인원	피해자		동반가족	보호 일수
		성년	미성년	미성년	
1월	36	23	4	9	79
2월	33	21	2	10	75
3월	19	14	0	5	52
4월	18	10	3	5	41
5월	21	17	2	2	51
6월	21	14	4	3	67
합계	148	99	15	34	365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1366을 널리 알려달라는 정미화 센터장의 당부를 곁집으며 SNS 홍보기자단은 다음 일정으로 향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9월 27일 · 🌐

【유연옥 천안시 명예기자 제공 기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홍보기자단의 9월 지역정기모임 간담회가 9.27(금)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와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였다. 1366충남센터 도내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전초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긴급보호, 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으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1년에 160,000건 상담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 정미화 센터장 외 16명의 전문상담원이 충남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있다.

(문의 041-1366)

한편 공주시의회를 방문 정중순의원으로 부터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과정의 고충에 대해 듣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모든이에게 꼭필요한 정책으로 성인지적관점에서 공주시의 숙원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선정 및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공주시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살기좋은 도시로 변화되어 도민 모두가 공주시에 살고 싶은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 SNS 홍보기자단에게 듣는다 지난 3년의 소회

4기 SNS 홍보기자단의 구분중 단장을 만나 지난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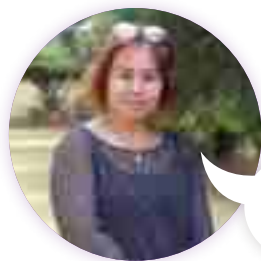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경하 연구원의 권유로 만 3년간 SNS 홍보명예기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각 시군의 여성정책을 점검하고, 조언을 듣고, 개발원에 새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이 대단히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사회학을 전공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SNS 홍보기자단 교육을 받으면서 무심결에 나오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우리세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에 귀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여성과 남성, 빈부,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충남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해지는 공존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 SNS 홍보기자단이 말한다

SNS 홍보기자단이 말하는 “SNS 홍보기자단은 「 」다”



| 최미자 기자

SNS 홍보 명예기자단은 「행복전도사」다



| 기은주 기자(右)



SNS 홍보 명예기자단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SNS 홍보기자단이 말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 」다”



| 구분중 단장

여성정책개발원은 「인생의 보금자리」이다.

| 유연옥 기자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을 위한 마중물」이다.

| 김은선 기자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들의 태양」이다.

SNS 홍보기자단이 말하는 ‘나의 신조’

| 박순배 기자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이 행복하다」

그리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이스라엘 연수
연구과제내역 (기본/정책/현안/수탁)
연구과제 (심화)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이스라엘의 여성창업을 둘러보다



인구 850만에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 성장했다. 그러나 '창업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여성 기업가의 비율은 현저히 낮고,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높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근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16개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모여 매년 추진하는 해외연수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위원과 김매화 행정원이 참여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들이 펼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활동에서 충남여성의 내일을 위한 많은 영감을 받았다.

visit report

대담하게 도전하고 당돌하게 쟁취하는 '후츠파 정신'

- 창의교육의 대가,

헤츠키 아리엘리 간담회 (2019년 6월 23일)



“내 눈앞에 쉬운 것부터, 한사람부터 시작해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헤츠키 아리엘리(Hezki Arieli) '글로벌 엑셀런스(Global Excellence)' 회장과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세계적인 창의교육 대가 아리엘리 회장은 이스라엘의 콘텐츠와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대인의 철학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그는 유대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후츠파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후츠파 정신은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실패를 허용하고 대담하고 당돌할 만큼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는 능력이자 기업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당돌하게 도전해 쟁취하는 태도는 이 시대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충남 여성들에게도 '후츠파 정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멘토십

-Woman2Woman(W2W) (2019년 6월 24일)

'Woman2Woman(우먼투우먼, W2W)'은 재능 있고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커뮤니티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여성 기업가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직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W2W은 이스라엘 여성 기업가가 부족한 원인이 사회적, 교육적인 이유와 함께 여성의 롤모델 부재에도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 설립했다.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 여성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W2W은 굴지의 경영 컨설팅 회사, 회계 자문 회사, 대형 은행, 사이버 보안 회사 등을 파트너로 두고 있다.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며 이끌어준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파트너 기업들은 유능한 여성 인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동시에, 전체 여성 고용 비율을 증가시키며 여성들을 핵심 직무로 승진시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의 질과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W2W의 거시적 목표이다.

W2W가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멘티를 선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망이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있는가?’이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네요.”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자기 분야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선택해, 더 높이 끌어올려 주고자 한다.

취약계층 여성의 노동을 고민한다

-이스라엘 노동부 (2019년 6월 24일)

우리나라에는 ‘가족친화인증’이 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친화’ 기업이 있다. 이스라엘은 여가부가 생기면서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취업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여가부에서 인정을 해준다.



이스라엘 노동부와 여가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초정통파 유대교’ 여성의 노동문제다.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초정통파 유대교 인구는 10% 정도인데, 높은 출산율로 인해 머지않아 2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유대 율법이 중심이 되는 보수적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 남성들은 전통 유대의 율법서인 ‘토라’ 공부에만 치중하고 여성들이 밖에 나가 일하고 돈을 번다. 따라서 이 집단 여성들의 경제 활동참여율은 굉장히 높지만 저임금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들만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

기 때문에 공적인 교육 제도 속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에도 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많은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 여성들은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면서 6, 7명에 달하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도 도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이스라엘 노동부와 여성부는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확장하며 다각도의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

-텔아비브 도서관 (2019년 6월 25일)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인 텔아비브시는 ‘디지털 (Digi Tel)’이라는 모토 아래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메카로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텔아비브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로스차일드 거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준하는 하이테크 스타트업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 거리 주변으로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꿈꾸는, 혹은 이미 창

업한 창업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밀집해 있다.

텔아비브 시가 운영하는 텔아비브 도서관은 도서관을 넘어 스타트업의 허브로도 유명하다. 2011년부터 텔아비브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서관이 공간을 제공하는 체계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이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꿈꾸는 예비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정해서 1년간 무료 입주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2기(1기당 12팀)의 입주기업팀을 배출하여 총 264개팀에 공간을 제공했다. 공간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필요한 교육, 시와 협력한 프로젝트 추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제공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입주 후에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을 반환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 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유망한 청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성장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지원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이테크 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을 50%까지 높인다

- She codes(쉬코즈) (2019년 6월 26일)



이스라엘은 인구의 51%가 여성이다. 그러나 하이테크산업 분야 종사자 중 여성은 30%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15%만이 여성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교육민간단체가 'she codes'다. she codes는 향후 10년 이내에 하이테크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여성비율을 50%로 높인다는 목표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she codes는 구글, 아마존, 이베이, IBM 등과 같은 주요 하이테크 기업과 다양한 하이테크 분야 스타트업 종사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 명 이상의 여성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총 8개의 과정으로 각각 15~20주 동안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교육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켜 하이테크산업에서의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고, 그런 인재들이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6년간 she codes를 통해 하이테크 분야로 취업한 여성은 9백 명에 달한다.

she codes의 핵심은 공간과 각종 물품을 무상으로 공유해주는 50여 개의 기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기술을 나누기 위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4백 명의 자원 활동가들이다. 거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뭘까? she codes의 활동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수요에 맞춘 여성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충남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여성이어, 잘못된 세상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라

-마샤브 카멜(MCTC) 교육 센터 (2019년 6월 26일)



전쟁 직후의 성장 과정과 다양한 해결과제들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임금격차, 가정폭력 등의 여성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감추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웃들과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엘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MCTC를 설립했다. MCTC는 MASHAV(빈곤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외무부 산하기관) 최초의 훈련 센터 중 하나로, 1961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지역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원은 재정적 측면이 아닌,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기업가 정신, 여성의 젠더이슈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150여 개국 2만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워크샵 등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MCTC는 세 가지 영역에서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으로 여성이 관리자 지위로 상승하도록 유기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유아교육인데, 입학 전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여성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아직 이스라엘 내에서도 임금격차, 가정폭력 등의 여성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감추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웃들과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 속에는 'fix the world(세상을 고쳐라,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가치관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2019년 연구과제- 목록

기본과제

과제명	연구자
【전략】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양육환경 개선 방안 연구	최은희
【기초】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한 여성DB 구축	조윤진
충남 여성 인물사, '충남 여성 이야기 3'	김종철
충남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	안수영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양성평등 정책 20년 성과와 전망	김영주
충남 농촌복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태희원
충청남도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임우연
충남 데이트폭력 현황 및 지원방안	이경하
충남 장애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개선방안	맹준호
충남 결혼 이주여성 문화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방안	우복남

정책과제

과제명	연구자
충남 남성의 일·생활균형 인식과 정책지원 방안	안수영
충남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개발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지원 방안	김종철
특성성별영향평가 시범 연구 : 충남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정책	
충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우복남
충남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효과 증진 방안	
충청남도 양성평등 국제포럼 추진 방안	임우연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방안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태희원
충남 여성농업인 농작업관련 건강문제 개선 방안	
도내 권익보호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맹준호
충남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개선 방안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광역기능 모색 연구	최은희
충남 보육특수시책 사업점검 및 신규시책 개발 방향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혁신 방안	송미영
젠더관점에서의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 방안 :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현안과제

과제명	연구자
기초 젠더거버넌스 운영 및 신규 대상지 발굴 컨설팅	태희원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양성평등 의식조사 설문 설계	조윤진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송미영
실·국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및 보완	김종철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송미영
충남광역새일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컨설팅	안수영
2020년 성인지 예산서 사업 검증 컨설팅	태희원
18년도 도내 시군별,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분석	안수영
충남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최은희

수탁과제

과제명	연구자	발주기관
2019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김종철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만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최은희 외	도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우복남 외	도 경제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3개년계획수립 연구 (2020~2022년)	김영주 외	도 여성가족정책관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김종철 외	공주시
2019 공주시 성인지 통계 연구	태희원 외	공주시

공동연구

과제명	연구자	발주기관
충남 고용서비스기관 기능 활성화 방안	안수영	충남고용네트워크

2019년 연구과제- 개요

충남 아동돌봄 실태 분석 및 정책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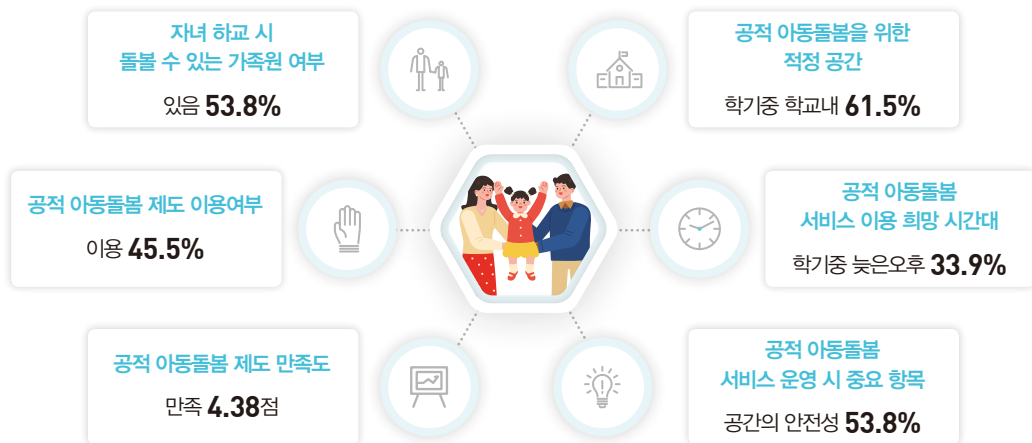
최은희 선임연구위원

>> Why?

-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출산률 제고의 목표를 지양하고, '아이와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함. 이에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 (2018~2022)」수립을 통해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기반 조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수요대비 공급 규모가 양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미흡함

>> What?

- 초등학생 아동을 돌보는 정책개발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 실태 및 정책욕구를 조사함
- 초등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 초등학생 자녀 하교 후 돌봄실태 분석
- 공적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욕구



충청남도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재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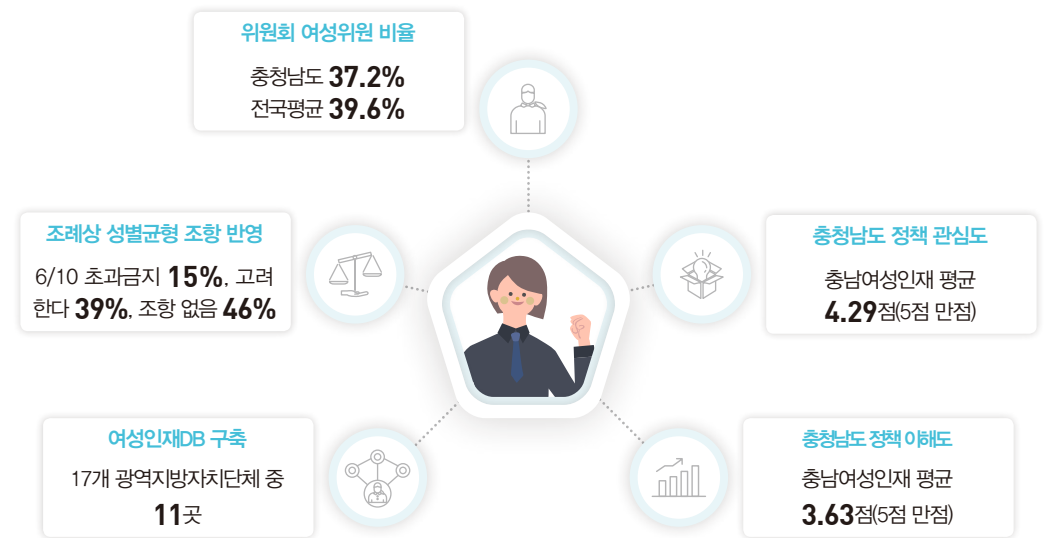
조윤진 연구위원

>> Why?

- 충청남도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특히 여성대표성이 낮음. 낮은 여성대표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잠식시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의 발목을 잡음.
- 충청남도는 도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음

>> What?

- 충청남도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충남여성인재의 성인지적 정책참여 역량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원회 성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충남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 도내 여성 기업가 창업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안수영 연구위원

>> Why?

- 충청남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로로 창업을 적극적인 또 하나의 선택지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를 통해 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창업 프로그램 추진이 탄력 받는 호기임

>> What?

- 여성 창업가들은 어떤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창업하였으며 창업 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고 실효적 창업지원이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를 탐색함
- 여성 기업가 창업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 창업자의 시행착오, 창업의 장점, 애로 사항, 정책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충청남도가 여성 창업정책을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함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20년 성과와 전망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 Why?

- 도정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추진력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민선7기 도정 비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What?

-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리

가정복지 정책 추진기	민선1기 1995~1996	여성·가족정책 확대기	민선4, 5, 6기 1995~1996
여성정책 기반 형성기	민선1, 2기 1995~1996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기	민선6, 7기 1995~1996
여성정책 확대기	민선2, 3기 1995~1996		

정책제언	주요내용
부서별 성평등목표제	• 부서별 성평등 실행목표 설정과 부서장 평가와 연동
성인지정책담당관 도입 및 운영	• 개방형 직위 전담전문가 임용 • 부서 간 성평등정책 조정 및 점검 • 부서 간 협력/연계 과제 발굴
분야별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 젠더폭력, 다문화, 여성농업인육성 등 법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 • 부서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
도-시군 양성평등정책 부서협의회 운영	• 시군제안 양성평등정책의 도비지원 • 도-시군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협치관계 증진 • 기타 협력사안 논의
도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성의 참여, 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관련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시군 건가센터 등 연계하여 추진
양성평등기금 및 공모사업 확대	• 양성평등기금 적립 • 양성평등공모사업 예산 증액 및 공모사업 확대
차세대 여성리더/활동가 육성	• 양성평등 공모사업과 연계 • 2030/3040 세대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참여 확대와 활동역량 강화

충남 농촌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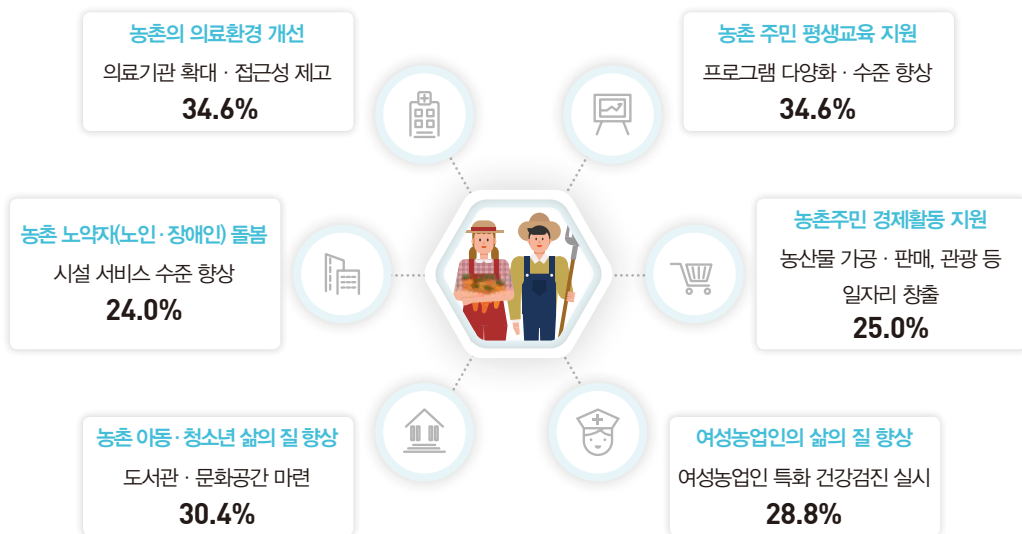
태희원 연구위원

>> Why?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욕구,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복지욕구는 무엇 인지 면밀한 조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What?

- 충남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생활환경, 안전 등 분야별 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또한 여성농업인 특화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 제언, 농촌 복지정책 전달체계 개선방안 또한 모색하여 제언하고자 함



충남 데이트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이경하 연구위원

>> Why?

-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 통제와 강요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과 성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함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짐

>> What?

- 충남의 데이트폭력 현황 파악 및 충남 도민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책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 피해 당사자와 현장 기관 종사자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지역차원에서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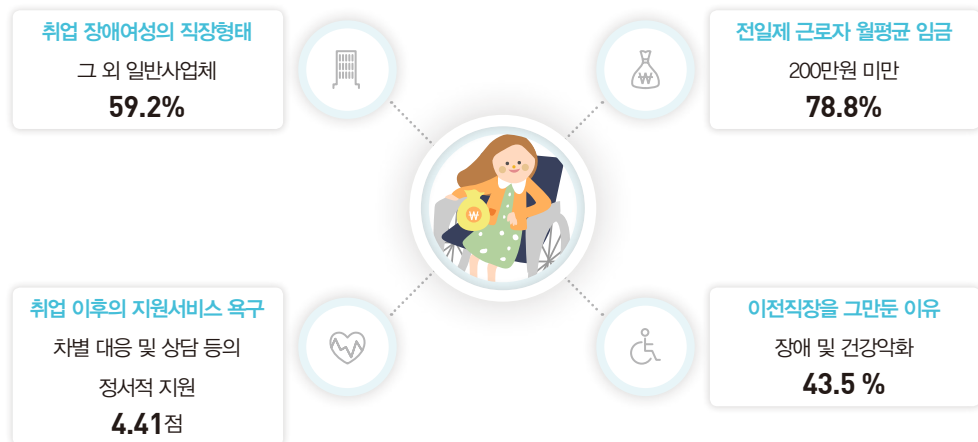
맹준호 연구위원

>> Why?

-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갖는 취약계층으로, 장애남성에 비해 학력, 직업 재할 등 기회가 부족하여 경제활동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취약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은 장애여성에게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 What?

- 충남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
- 충남 장애여성의 정책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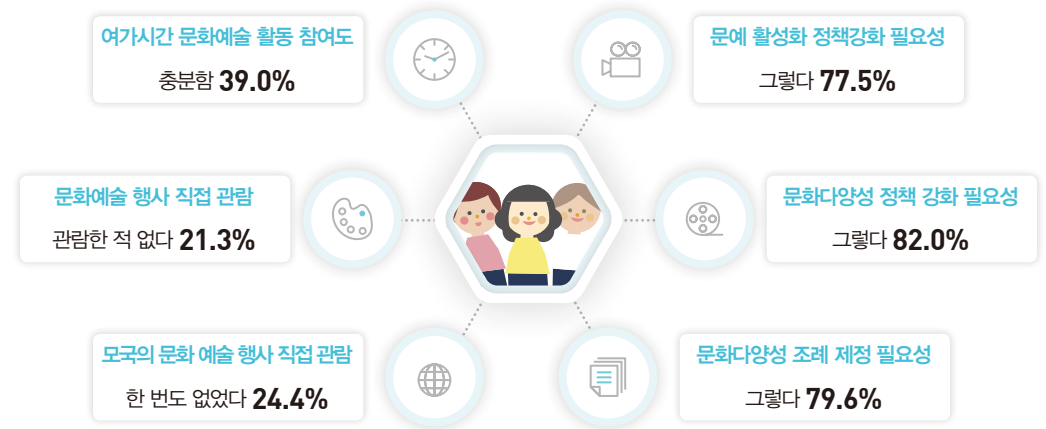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 Why?

- 최근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다양성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주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
- 충남 역시 외국인주민 정책 전반의 발전수준에 비해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 문화 다양성 측면에 관한 관심은 아직 적은 편으로 관련 정책발전 중요

>> What?

-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실태와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에 대하여

언론 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인론 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INSIDE
NEWS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고용네트워크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충남고용네트워크(대표 윤석진)와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충남도 및 시·군 여성 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컨소시엄 등의 협업 연구 ▲ 연구 원자료 공유 ▲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동 추진 ▲ 시·군을 비롯한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고용네트워크와의 협력으로 충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인적 자원 개발 정책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숙 원장은 “이번 충남고용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 여성의 고용과 노동 정책 발굴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스토리] 이철우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초의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6일 세미나실에서 도내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의원이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주와 아산, 계룡, 서천, 홍성 등 5개 지역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은 ‘성인지 감수성 업(up)’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의 문화와 현실을 다양한 사례로 들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건강과 안전, 지역개발, 복지 등 지역의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성인지적 관점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세 번째로 장래숙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연구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례 제·개정 사례 및 실무’를 주제로 의정활동 적용방법을 제시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업무협약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춘숙),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3월 4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여성단체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으로는첫째 연구 및 포럼·토론회·세미나등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둘째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에 관한 협력사항셋째 기타 양 기관의 발전 과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그동안도 양 기관은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협약식에서 임춘숙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해 왔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으며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도 충남여성단체협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그동안 충남의성평등을 함께 해 온 파트너였으며 오늘 업무협약 절차를 통해 향후 더욱 협력관계가 돈독해질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BS] 이준희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개 시·군 여성 정책담당부서와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승숙 원장과 연구진이 올해 초 15개 시·군 단체장 접견을 통해 제안한 지역성평등 수준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과 여성 친화도시 등 각 시군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19년 주요업무 소개에서, 연속 6년째 하위 수준인 지역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창업 및 안전 분야 및 여성인재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한 충남지역 여성인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내용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업무지원에 대한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시·군 여성정책부서 담당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책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육군 양성평등장교 성인지 교육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3일 육군 본부와 공동으로 육군 내 양성평등상담관 및 양성평등관리장교 65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육군 내 여성인권과 고충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상담관과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관리장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상담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근양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의 강의에 이어, 윤원숙 육군여성정책연구위원과 양선화 양성평등센터장이 여성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또 교육 후에는 '양성평등상담관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양성평등 업무의 상호 애로사항과 제안 의견들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승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폭력과 인권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양성평등상담관과 양성평등관리장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김홍수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변조선자치주 부녀연합회 여성 지도자 연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지난 16~18일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여성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충남의 보육, 여성권익, 가족지원 현장기관 연수를 부녀연합회로부터 요청받아 충청남도의 초청과 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추진됐다.

1일차 일정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 예방·환담이 있었다. 이날 환담자리에는 충청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이번 연수 일정에는 부녀연합회 여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위 강방 부서기와 연변조선자치주 여성 기업가들이 참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5월 '한-중 여성친화적인 지방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한중포럼 개최를 비롯해 양국의 가족관련 공동연구 추진 등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양성평등교육 담당 교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5일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6년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 수립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30여명의 교사들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매년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은 충남도교육청과 사전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특히 교육생 및 강사 간의 토론과 참여 방식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년도 교육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총 10강의 주제로 기획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청 교사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오는 9일(금)까지 총 30시간의 교육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충남여성개발원 20돌 "여성이 행복한 충남 건설" 다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이하 충남여성개발원)이 16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충남여성개발원은 공주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체인지 앤 챌린지(change & challenge)'라는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승숙 원장을 비롯해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정진석 국회의원, 박수현 전 대변인, 김정섭 공주시장, 최홍목 계룡시장, 충남도의회 문복위원회 김연 위원장, 김옥수, 김한태, 정병기, 최훈 의원 등 내·외빈과 여성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행사와 식전행사, 세미나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여성개발원의 지난 20년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대에 찬 앞으로의 2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중도일보] 김홍수 기자

성평등 충남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조정실

이름	직 위	전 공	업 무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실장)	사회학	여성, 가족정책, 여성인권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 홍보사업
김기석	행정원	-	경영평가 관련업무, 사업실적 관리
호지영	연구조교	-	업무지원

연구팀

이름	직 위	전 공	업 무
안수영	연구위원 (팀장)	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언어문화학	다문화정책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가족·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
태희원	연구원	여성학	농촌여성, 거버넌스
맹준호	연구원	사회복지학	노인복지정책
김미란	연구조교	-	연구지원

교육·사업팀

이름	직 위	전 공	업 무
조윤진	연구위원(팀장)	사회복지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이채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조성사업
허선영	연구조교	-	교육사업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이름	직 위	전 공	업 무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센터장)	교육공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연구·컨설팅
태희원	연구원	여성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연구·컨설팅
박민아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 포럼개최 및 교육지원

행정팀

이름	직 위	업 무
나영주	행정원	인사노무, 이사회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기금 운영, 세입세출 외 운영
박선미	행정원	계약, 용역사업, 복지제도, 직원교육, 홈페이지관리
최영락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차량관리
이원우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소방훈련, 전산·개인정보관리
황선덕	행정지원	의전, 사무보조
김진순	행정지원	환경관리



Vol. 38 2019

충남인여성in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